

한화, 탄소배출권 사업 가속화

목포 매립가스 발전사업 CDM 등록 ... CO₂ 2만6000톤 감축

한화가 탄소배출권 사업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 무역부문은 전라남도 목포시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했다고 3월17일 발표했다.

목포 대양동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2MW용량의 발전기를 가동해 연간 1만 MWh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만6000톤 줄이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2006년부터 질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N₂O)를 감축하는 CDM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화는 국내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 내 탄소배출권 보유계좌를 직접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탄소배출권 양은 2012년까지 약 110만톤가량(CDM 기준)이며, 2010년까지 2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7>